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촛불집회 1주년을 맞는 감회와 체험기

지난 주 토요일, 10월 28일 오후 6시에 촛불집회 1주년 촛불집회가 '촛불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열렸다.

항과 반격을 하면서 혼돈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위악 뿌리가 깊은 적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선의의민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

상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무시한 모든 행위와 시설은 시정되어야 할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이다.

지난 1월 14일(토) 12차 촛불집회의 밤은 영하 10도였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참여한 젊은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역시 한 겨울 추운 어느 날 촛불집회 밤이었다.

촛불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촛불은 시민들 마음에 뿌려진 민주주의이다. 촛불은 '헬조선'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태풍 같은 의지와 헌신이었다.

나는 1차부터 23차까지, 그리고 1주년 촛불집회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보고 겪은 몇 가지 일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체험과 생각을 기록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디나 먹는 문제와 화장실 문제가 있다.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장소로 가는 길목인 서울시청역 화장실은 남자들의 긴 줄이 이색적이었다.

어느 몹시 추운 집회 날 밤이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깃발을 든 여학생이 쇠로 된 깃대를 옷소매로 손을 싸서 잡고도 손이 시려워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잡고 있었다.

적폐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촛불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민주주의로 나갈 길이 아직 멀다.

이 남자 화장실 개방을 협조받아서 다소 완화되었다. 말이 나왔으니 평소 생각을 한 마디 한다면, 모든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보다 최소 3배 이

하고 장갑을 그냥 주었다고 청년이 말했다. 내가 장갑의 용도는 말했지만 수 만 명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발견하고 돈 안 받고 주었는지 참 아름다웠다.

청와대 가는 길목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이 법원에 의해서 허가된 밤이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다 보면 화장실을 못 찾아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가족과 함께 참여한 적도 있다. 광화문 동쪽 동심자각 앞길에서 일본 후지TV와 노상(路上)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 머리에 형광 촛불을 달아주고 손잡고 함께 행진하는 가족들, 유모차 끌고 참여한 젊은 엄마들, 나란히 촛불 들고 행진하는 연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자유와 광장, 해방의 공간, 민주주의의 훈련장, 자유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힘,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저항과 반격을 극복하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社說

헌혈문화 확산시켜야 한다

헌혈 인구가 5년 만에 감소한 지난해부터 혈액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헌혈이 가능한 인구(16~69세)는 주는 반면 수혈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재 의원이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907만 명이던 헌혈 가능 인구는 2020년 392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2050년이면 3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헌혈을 많이 하는 16세 이상 10, 20대 인구의 급감이다. 지난해 헌혈 참여자의 73%는 10, 20대였다.

16세 이상 10, 20대 인구는

2000년 1204만 명에서 2015년 998만 명으로 감소했다.

2050년에는 619만 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 654만 명에서 2050년 1881만 명으로 3배로 된다.

헌혈 보유량이 3일 치 미만으로 떨어져 '주의경보'가 발령된 날도 잦아졌다.

헌혈 문화 개선을 위해 교과목에 헌혈을 장려하는 내용을 넣는 등의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貽厥嘉猷

이 글은 아름다울 때 유

貽厥嘉猷

▷ 뜻: 도리를 지키고 착함으로 자손에 좋은 것을 끼쳐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사고 잦은 '가을 산행' 주의 할 점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산행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을철에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법을 소개합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등산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자기 체력을 안배하지 않고 등산

하시다가 심정지가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야 체온을 유지하는데 좋고, 등산스틱 등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율동 불통한 산길을 갈 때 도움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스틱을 짚고 헤쳐서 산을 오를 때는 좀 더 용이 하

고, 내려 오실 때는 밑부분으로 짚고, 다리로 내려오면서 체중을 분산하면 되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갈 경우 멧돼지 등 산짐승과 마주치거나 조난을 당할 경우 위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헌희 / 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and fax number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Quality Education' (질문이 있는 교실) featuring a young girl and text about daily education and future generations.